

지역축제, 그 지역만의 문화·스토리 담아내야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4) 놀고 먹는 축제 그만

축제는 지역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다. 전통문화, 특산물, 볼거리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수많은 축제가 생겨났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축제가 해마다 40여 개씩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축제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이나 지

8일 폐막한 함평 나비축제도 5500만 원을 들여 바비큐, 나인뮤지스 등 아이돌 가수를 초청해 '개막축하공연'을 진행했고, 담양 대나무 축제도 올해 인순이 등을 개막식에 초청하는데 4900만 원을 들었다. 보성 다향제 녹차 축제와 구례 산수유꽃축제도 올해 각각 4000만 원을 투자해 가수 장유정, 박현빈, 현철 등의 공연으로 개막식을 꾸미는 등 전남지역 대다수 지자체가

을 즐기기 위해 연예인 초청행사를 열었다. 남비성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예산도 대폭 줄여 타 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3억 원에 불과하지만 100만 여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간다. 장성 홍길동축제와 순천 낙안민속축제도 연예인 공연이 지역의 민속민화를 소개하는 축제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통공연으로 개막공연을 대체했다.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축제기간 관광객과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명 연예인을 초청,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충장축제기간 열린 추억의 콘서트. <광주일보 자료사진>

연예인 초청 '개막공연' 위주... 축제 본질 훼손

전통문화·특산물·볼거리 등 목표 분명히 해야

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들이 관광객과 주민 동원을 위해 유명 가수를 초청해 꾸미는 '개막공연'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광주시 동구의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지난해 아이돌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 개막공연과 추억의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데 무려 1억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다. 지난해 충장축제 전체예산이 11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금액이다. 7080세대의 추억을 되찾아주겠다는 행사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개막공연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지자체는 동구만이 아니다.

4000만~5000만 원을 투자해 개막공연을 진행한다.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축제들을 평가,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도 연예인 초청 공연을 축제 메인행사로 열고 있을 정도다.

광주일보가 주최한 성공하는 지역축제 워크숍에서 송태갑 전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실장은 "최근 축제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산만하면서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연예인 등 외부의 힘이냐 소에 의지하게 되면서 축제의 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광양 국제매화축제는 몇 년 전부터 축제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예산

"마을문화"와 "스토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축제가 공연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관객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적다. 똑같은 먹거리가 판매되고, 똑같은 공연이 열리면서 축제의 특색을 찾아 보기도 힘들다. 심지어 매년 축제를 이벤트 회사에 맡겨 진행되는 지자체도 있다.

지역의 전통을 축제에 담으려는 의지는 부족하고, 물건과 음식물을 파는 장소로 변질돼 순수한 축제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석선 서기관은 "지난 3월 열린 전국 축제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도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남비성 프로그램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축제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행복이라는 것'

웃음과 울음 사이 '광대'

주대희 개인전 12일까지 금호갤러리

한지에 스민 먹으로 표현된 인물 표정은 하나같이 복잡다단하다. 새장과 관에 갇힌 얼굴, 그리고 웃음과 울음의 경계선에 있는 듯한 표정은 슬픈 광대를 떠올리게 만든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유다.

2013년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인 한국화가 주대희씨의 개인전이 오는 12일까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주씨는 이번 전시에서 '제발...'을 주제로 '관' '얼굴' '가족' 연작을 선보인다. '관' 연작과 '얼굴'시리즈는 '불'을 강요하는 사회적 제도와 규범에 대한 고발을 표현했고, '가족'연작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들의 힘겨운 일상을 보여준다.

조선대 미술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주씨는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무등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문의 062-360-843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부 입상자

- <심사위원> 박행숙(목포대 교수) 문현욱(전남대 교수) 이훈진(세한대 교수) 박재연(조선대 교수) 김혜원(광주여대 교수)
- 116 김채민(광양마동 3) 134 김노경(송정 3) 141 김가인(광양제철남 3) 142 최세령(화산제일 4) ▲ 동상 7 장하윤(광주동문 4) 26 홍서영(광주동문 4) 28 박세희(불로 4) 32 안세은(광주동문 4) 33 조유림(장덕 3) 41 장세영(광주풍향 3) 53 김민찬(선창 3) 58 이정원(대자 4) 62 김유현(대봉 3) 64 박현아(목련 4) 66 장주희(금호 4) 67 김 민(선창 3) 70 이현주(담양동 4) 79 김건준(목포목양 4) 82 박가영(일곡 3) 107 편성혁(송정 3) 112 김채원(유안 3) 113 김나은(유촌 4) 114 황현지(불로 3) 115 최은지(장덕 4) 117 전세은(어룡 4) 122 김윤재(은빛 4) 130 심재연(풍영 4) 139 유아름(목포이로 3) 143 정재윤(화산 4)
- ◇ 초등부 3, 4학년 ▲ 최고상 60 김예진(독천 4) ▲ 금상 27 박가현(목포영산 3) 35 선예람(선창 3) 42 박하원(2003년생) 127 김래현(광주송원 3) ▲ 은상 15 이현영(광주교대광주부설 4) 18 오연주(광주남 4) 20 박소원(목포이로 4) 21 장윤정(선창 3) 23 김태나(광주송원 4) 43 한동수(문흥중앙 4) 44 유보영(삼육 3) 48 이솔하(불로 4) 54 박 솔(수문 4) 59 송유나(목포항동 3) 61 유지후(삼육 4) 76 임준(계수 4) 102 한유림(목련 3) 109 노채원(대자 3)

봄날, 꽃노래 불러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오늘 호신대 티브라운

봄날, 흐드러지게 핀 꽃을 소재로 한 가곡을 함께 부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 5월 모임이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열린다.

'꽃을 노래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이형기 시에 곡을 부친 '필레꽃'과 송문헌 시인의 시에 이수인·윤고생씨가 각각 곡을 부친 '필레꽃 피는 산길'을 함께 배운다.

또 특별 초대 손님으로 '빛고을

시니어 앙상블'이 출연, '보리밭',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을 들려주며 '과수원길', '아카시아꽃', '동심초', '봉숭아' 등 친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한다.

그밖에 회원 유덕희·이용조·김완조씨가 '또 한송이 나의 모란'을 부른다. 티켓 가격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와 차를 즐길 수 있다.

http://cafe.daum.net/gjkrson 문 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사재기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사실로

SBS '현장21', 황석영 '여울물 소리' 등 3권 의혹 제기

한국 문단의 거목인 황석영을 비롯해 김연수 등 촉망받는 작가들의 작품이 사재기 의혹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책은 황석영의 '여울물 소리', 김연수의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백영옥의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조찬 모임' 등이다.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은 지난 7일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판사 자음과모음이 펴낸 '여울물 소리'와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등 3권을 사례로 제시했다.

황석영은 방송이 나간 뒤 자신은 사재기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즉각 해명하며 해당 작품을 절판시키겠다고 밝혔다. 황석영은 "'여울물 소리'는 칠순을

맞이해 작가 인생 50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실린 주요 작품으로 이런 추문에 연루된 것 자체가 나의 문화 인생 전체를 모독하는 치욕스런 일"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의혹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재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출판계 내부에서 대대적인 자정 노력을 벌였지만, 사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출판사들이 사재기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 판매 구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순위가 오르는 것이 책 판매 부수와 직결되다 보니 사재기 등 부정행위를 통해서라도 일단 베스트셀러에 올려놓고 보자는 출판사들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습

'상상창작소 봄' 5·6월 정기답사 참가자 모집

답사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협동조합 '상상창작소 봄'이 5·6월 정기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에는 '자연과 벗하다'를 주제로 지리산 자락에 고운 속내 가득한 '함양'의 숨은 모습들을 찾아가는 25일 떠나는 이번 답사는 화림동계

곡에 있는 거연정, 군자정, 동호정 등 정자를 둘러보고, 송안사터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답사비는 4만2000원으로 간식과 점심, 답사자료 등이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40명이다.

6월에는 익산과 정읍, 임실, 고창으로 향한다. '꽃담을 찾아가다'를 주제로 백이나 담장에 무늬나 글씨가 수 놓인 한옥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익산 함라마을 꽃담장과 임실 녹천재, 영모재, 정읍 김동수 가옥, 고창 송양사의 예쁜 꽃담들이 기다리고 있다. 참가비는 4만 원이다. 문의 062-972-323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세계최고 단롭침대 라텍스 판매

중저가 엔틱스파 7종류 신상품

중저가 확장형식탁, TV장 신상품

자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